

#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대 발전 계획

日 해상자위대의  
하타가제 전함



## ■ 호위함의 발전

**1954** 년 7월 1일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창설될 당시, 해상자위대의 주력 함정은 미국 해군에서 대여받은 구축함(기준배수량 1,600톤급)을 개명한 「아사가제」였다.

그러나 2년후 일본 최초의 대형 호위함 「하루가제」 건조를 계기로 점차 자국내 함정 건조를 확대해 나갔다. 「하루가제」는 일본에서 선체만을 건조하고, 탑재 무장 및 관련 장비는 모두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건조 패턴은 최근 건조된 최신예 이지스급 호위함 「콩고」까지 계속되었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1차 방위력 정비 계획을 실행하면서 대공미사일 구축함 「아쓰마가제」를 건조하면서 해상 자위대의 전력을 증강하였다. 기준 배수량 3,000여톤으로 대공 미사일 타-타(Tartar)를 탑재한 이 함정은 당시로서는 최대급이었다.

연이어 계속된 2차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는 함수 소나와 대잠 로켓(ASROC)을 장착한 「야마구모」와 「타까쓰끼」를 건조하였다. 그후 대잠 헬기의 탑재가 가능한 호위함 「하루나」와 「시라네」를 거쳐, 범용 호위함인 「하쓰유끼」, 「아사기리」, 「무라사메」급 함정으로 계속 발전하였다.

스탠다드 미사일(MR형)을 장착한 「타치가제」와 「하타가제」의 건조와 동일 형태의 「찌쿠고」 호위함을 다수 설계, 건조하면서 현저한 기술 진보를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 이지스 시스템 함정인 「콩고」급 호위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해상 자위대의 함대는 자위 함대와 지방대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 규모와 세력은 1976년 각의에서 결정된 [방위계획의 대강]을 기본으로 하여 편성되어 있다.

자위 함대는 기본적으로 4개의 호위대군으로 구성된 호위함대, 2개의 잠수대군으로 구성된 잠수함대, 7개의 항공군으로 구성된 항공집단으로 되어있다. 지방대는 10개 호위대가 중심 전력으로 되어있다.

1994년도 말 현재 해상 자위대의 주요 함정 취역 수는 총 162척, 총 톤수는 약 32만 6000톤으로, 그

내역은 호위함 31척, 잠수함 16척, 소해함정 39척, 기타 46척으로 되어 있다.

해상자위대의 최대 임무는 태평양 전쟁의 교훈에서 얻은 교통로의 안전 확보이며, 임무 수행의 주역은 고도의 대잠수함전(ASW) 능력을 갖추고 있는 4개의 호위대군이다.

호위대군은 호위함 8척과 대잠헬기 8기로 편성된 것에서 일명 [88함대]라고도 불리워 진다.

물론 이것은 위성된 조약전의 전함 8척과 순양함 8척의 구일본제국 해군의 장대한 “88함대” 정비계획을 흡내내어 붙인 이름이다.

호위함 8척의 내역은 대잠 헬기 1기를 탑재하는 범용형 호위함(DD) 5척, 함대 방공임무의 미사일 호위함(DDG) 2척, 대잠 헬기 3기를 운용하면서 대잠수함전의 주력이 될 헬기 탑재 호위함(DDH) 1척이다.

### ■ 경항모 보유론

일본의 극우파 군사전문가들은 해상 자위대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해상자위대의 4개 호위대군이 100% 운용될 경우, 연간 2억톤에 가까운 물자를 수송하는 선단을 호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1991년 해상수송량은 약 9억 9000만톤에 이르고 있으므로, 1000해리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기본 임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함대와의 공동 작전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다.

그러면 장차 호위대군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냉전 종식에 따라 구소련 극동 함대의 위협이 저하되어 있음은 분명하나, 반면에 동남 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경제 발전을 배경으로 해군력을 확대하는 경향이므로 오히려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각국의 항공모함 보유 움직임은 이를 상징하는 것으로, 태국 해군은 이미 11,485톤급

의 경항공모함 CHAKRI NARUEBET를 1997년 7월 취역을 목표로 건조중에 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의 주력인 호위대를 단순히 대잠 능력과 방공 능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세계 군사상황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다목적 함대(Multi-Purpose Fleets)의 완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00톤급의 V/STOL 경항공모함이 해상자위대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잠, 대공, 대함 전투의 중심이 되어 긴급 전개 부대를 수용하여 지역 분쟁에도 즉각 대응 가능할 것이다.

경항모의 유효성은 보스니아 내전에서 영국, 프랑스 해군의 항공모함 함대가 이미 증명한 바 있다. 해상 자위대의 새로운 호위대군으로 등장할 다목적 함대는 이지스 호위함의 추가 배치를 중단더라도 경항모를 헬기탑재 호위함의 대치함으로 건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일본은 1982년 포클랜드 전쟁후 씨-해리어(Sea-Harrier) 공격기를 운용하여 활약한 영국 항공모함 「인빈시블」급 경항모를 건조한다는 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아음속기인 씨-해리어의 능력으로 적의 초음속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저지 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됨에 따라 설득력을 잃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별도의 의미로 경항모의 유용성이 재확인되고 있다. 지역 분쟁과 PKO지원에 대한 대응 능력의 규모가 주목됨에 따라 배수량 15,000톤 전후의 경항모가 있다면 긴급 전개 부대 약 800명, 수송 헬기 10여기, 호위용 공격 헬기 또는 헤리어 공격기를 탑재하여 분쟁지에 급파할 수 있다.

대공, 대잠, 대함, 임무 등 다목적으로 운용 가능한 경항모는 [시라네]급 헬기 탑재 호위함의 대치함으로 배치하는 안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자료 : <국방기술정보> 國科研, 1996. 6. pp.58~60)